

보도시점 2026.5.22.(금) 11:00
< 5.23.(토) 조간 > 배포 2026. 5. 22.(금)

산업부, 부내 AI 도입·활용 본격화

- AI 혁신 자문단 출범 키프 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내부 행정 업무에 AI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AI 혁신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 키프 회의를 개최(5.22, 석탄회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업부는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산업통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AX 추진을 목표로 ①AI 거버넌스 구축, ②맞춤형 AI 서비스 도입, ③부내 직원의 AI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부내 AI 도입 기획과 실행을 전담하는 민간 AI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26년 7월)하고, AI 혁신을 선도하는 부내 실무자로 구성된 AI 파이오니어 그룹을 구성·운영해 나가는 동시에 금일 개최하는 ‘부내 AI 혁신 자문단’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간기관의 최신 AI 활용 동향을 바탕으로 부내 AI 도입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 인터넷망에는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신 AI 모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AI 포털을 설치하고, 내부 업무망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내부 업무의 지능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산업·자원, 통상, 표준 및 인증 등 산업통상부 업무에 특화된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AI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AI 실무교육, 외부 전문가 강연 및 강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직원들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스킬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내부 직원 중심의 AI 기능 도입 확대와 함께 직원들의 참여와 활용을 높이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내 AI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5550)
	정보관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정식 (044-203-5552)

참고**산업통상부 부내 AI 혁신 자문단 회의 개요**

- 일시 : '26.5.22.(금), 16:00 ~ 17: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4층
- 내용 : 산업통상부 AI 도입·활용 촉진 방안
 - ① 산업통상부 부내 업무 AI 도입·활용 추진계획(안)
 - ② 외부 전문가 자문
- 참석자
 - 정부 :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정보관리담당관
 - 산업계 :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 학계 : 경기대학교(AI컴퓨터공학부), 성균관대학교(인공지능융합학과)
 - 연구계 :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지방행정연구원
- 세부 일정(안)

구분		주요 내용
16:00~16:05	5'	인사(산업부 기조실장)
16:05~16:15	10'	산업통상부, 부내 AI 도입·활용 추진계획(안)
16:15~17:25	70'	전문가 토의
17:25~17:30	5'	마무리 인사 및 폐회